

## 디자인 선진국을 향한 해외 전시 유치와 교육 시찰: 국제 교류

# 1977

### 디자인진흥원사

- 중동 지역 수출품 포장실태조사
- 《이태리 산업디자인전》 개최
- 「디자인포장진흥법」 공포 (법률 제3070호)
- 본사 건물 증축 완공(국내 최대 상설 디자인전시관 및 자료실 오픈)

### 한국 디자인사

- 『꾸밈』 창간
- 미진사 「디자인 용어 사전」 발간 (박대순)

### 한국 사회사

- 수출 100억 달러 돌파
- 주택청약제도 실시
- 한국과학원 국내 첫 팩시밀리 개발 성공
- 한국토지개발공사 설립

이번 전시에서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민간 베이스에서 이런한 전시회를 유치해온다는 것과 또 상품을 구입해서 전시회를 갖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아직까지는 정부 주도형으로 진흥책을 떠나가야 하며… 진흥을 맡고 있는 디자인포장센터 같은 곳에서 다각적인 외교 활동을 함으로써 이러한 전시회나, 교육 시찰과 같은 진흥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민간 베이스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sup>21</sup>

1977년 열린 《이태리 산업디자인전》 직후 열린 좌담회 기록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197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는 민간 차원에서 해외 정보를 입수하거나 교류할 수 있는 통로가 협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KIDP는 일찍부터 해외의 우수한 디자인 사례를 국내에 알리는 역할을 자처했다.

설립된 해인 1970년 10월과 1972년 10월 개최한 《스위스 포스터전》을 시작으로 1973년 《우수포장 비교전》, 1974년 《해외포장 자료전》, 1977년 《이태리 산업디자인전》, 1979년 《영국 산업디자인전》, 1988년 《프랑스 산업디자인전》 등을 개최해 국내의 디자이너들에게 세계의 디자인을 만날 기회를 제공

했다. 해외 유명 디자이너를 초청해 국내 기업의 디자인을 지도하는 사업도 이 시기에 시작됐다. 1996년까지 매년 100여 명의 유명 디자이너를 초청해 수출 품목의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노력했다.

1990년대는 해외 디자인 진흥 기관과의 업무 협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던 시기이다. 1994년과 1996년에 해외의 최신 디자인 트렌드를 국내에 소개하는 《서울 국제 산업디자인교류전》, 《세계 우수산업디자인박람회》를 개최해 업계에서 큰 호응을 얻었으며 1996년 《가우디특별전시회》 개최는 가우디의 예술 세계를 국내에 처음 소개하여 화제가 되기도 하였다.

또한 한국 디자인의 국제화를 위해 1994년 주한 영국대사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해 《서울 속의 영국 600: 영국 산업디자인 전시회》를 개최했다. 이외에도 독일 디자인 진흥 기관인 노르트하임 베스트팔렌 디자인센터와 진흥 업무 협약을, 1995년에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대학과 교육 업무 협약을 맺었다. 1996년에는 라트비아, 벨라루스, 에스토니아, 스위스, 루마니아, 러시아, 슬로바키아의 디자인 진흥 기관과 업무 협약을, 네덜란드, 독일, 스페인의 대학과는 교육 업무 협약을, 1997년에는 인도, 태국, 폴란드, 불가리아, 이스라엘, 대만의 디자인 진흥 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는 이후 한국 디자인을 세계에 알리고 국내 디자이너들을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발판이 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 한국의 디자인을 알리고, 이들 국가에 디자인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함께 디자인 분야 연수 사업을 시작했다.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등 남미와 몽골,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아시아에서 온 디자이너와 기업 임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디자인산업 및 정책, 한국 기업의 디자인 성공 사례에 대해 교육했다.